반 번 이름

소단원 평가 ① 02. 문학의 인식적·윤리적 기능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꽃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연필 같은 것. 남지 않는 것들. 그걸 영영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선물이라야 주고받는 마음이 홀가분했다. 사물에 사연이 쌓여 가서 추억이 사물보다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시절의 나는 여렸던 것임이 틀림없다. 실은 선물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여림에 대한 불만 쪽에 더 가까운 심사였을 것이다.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해 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백 프로 공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 보고 싶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넸을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 내 방은 그러한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방에 담겨진 나는 그 소곤거림을 배경 음악처럼 등에 업고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럴 때 나의 글쓰기는 어쩌면 대답 같은 것이고 어쩌면 약속 같은 것이고 어쩌면 즐거운 받아쓰기 같다.

베이징을 여행했던 선배가 "왕창 사 와서 다 주고 하나 남았어."라며 건네준 마오쩌둥이 그려진 케이스, 몽골 여행을 다녀온 후배가 "갖고 싶다던 게 이거예요?" 하던 게르 미니어처,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라며 갖고 있던 소품을 선뜻 건네준 후배, 재활용 쇼핑백을 잘라서 엮은 항아리를 노숙인들의 벼룩시장에서 샀다며, 한 시간이 넘게 나를 기다려 건네주고 간 친구, 이 용도를 알아맞혀 보라며 방긋 웃으며 친구가 건네준 부엉이 모양의 연필깎이, 받는 나보다 주는 그 사람이 더 오래 매만지며 즐거워했던, 오래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목재 오르골, 돌멩이 하나, 도토리 하나, 저금통 하나 ……

적어 내려가다 보니,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다. 선물을 건네면서 해 준 한마디. 농담처럼 던졌든, 지나가듯 말했든, 진지하고 가열하게 자신의 안목을 침 튀기며 피력했든 간에, 선물을 쳐다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른다. 그 한마디와 더불어 그 표정도.

그러면 나는 빙그레 웃고야 만다. 아마도 이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쪼르륵 놓여 있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그레 혼자서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사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그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 줄 때마다 옆의 사물에게 소개해 주듯 말을 건넨다는 걸. 빙그레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라디오를 하나 골라야 한다. 이사한 친구에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고 '라디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를 고르자니, 그 동네는 FM의 주파수가 쉽게 잡히는 동네일지 아닐지, 그 새로운 집은 어떤 디자인의 라디오가 어울리는 공간일지, 하나부터 열까지 친구가 사는 환경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 라디오를 고르다 보니 내가 선물로 받았던 라디오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가 꼭 갖고 싶어 하던 그 모델을 몇 년 동안 별러서 기어이 선물로 내밀었던 친구. 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지내 온 시간들. 라디오가 낡아 가는 만큼 우리가 깊이 친해지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다. 이 낡아 가는 라디오의 안부를 오늘은 친구에게 전해 주어야겠다. 인증 사진을 찍어서 그때를 함께 새삼스레 떠올려 보고 싶어서. 친구는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가 있는 이 방에서. 우리가 동시에 함께 떠올릴 사연과 감정이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1.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모색하고 있다.
②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통해 어울려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타인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 설정한 삶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LIVEWORKSHEETS

2.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관련 사례를 열거하고 예시를 들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비유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글쓰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④ 대상을 대하는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⑤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① '나'는 선물에 추억이 쌓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여렸던 때가 있었다.
② '나'는 선물 그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고받은 시간이나 사건 자체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선물을 주고받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에 일상 속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④ '나'는 친구에게 선물할 라디오를 고르며 자신이 선물로 받았던 라디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⑤ '나'는 선물에 담긴 사연과 추억을 행복하게 떠올리는 것이 선물이 선물답게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4. 이 글을 읽고 <보기>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이 글의 제목은 '빙그레의 영역'입니다. 이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을 뜻합니다.
② 외부와 단절되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③ 선물들이 있는 공간이자 선물에 담긴 사연을 떠올리며 웃는 시간을 뜻합니다.
④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했던 작가 자신의 과거를 뜻합니다.
⑤ 사소한 선물이었던 사물들의 소곤거림을 소재로 글을 쓰는 작가 자신의 직업을 뜻합니다.

5. <보기>는 '선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과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2어절로 쓰시오.

<보기>

과거

- 영영 간직하거나 사연이 쌓이지 않게 사라지는 선물을 받기 좋아함.
-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쪽이 좋음.

↓

현재

선물은 [㉠]이/가 아니라 [㉡](이)라고 생각함.

[6~1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LIVEWORKSHEETS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6.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화 형식으로 화자와 대상 간의 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② 특정 연을 변형하고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7. 이 시에 나타난 대립적 이미지와 시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밝음	어둠
아침	밤비

②

상승	하강
침전	눈물

③

긍정	부정
강의	어둠

④

내부	외부
창밖	육첩방

⑤

정적	동적
속살거리는데	내몰고

8. 이 시에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구를 찾아 3어절로 쓰시오.

<보기>

이 작품에서 분열되어 갈등하던 두 자아는 후반부에 가서 '[ ]'을/를 기다리며 화해하고 통합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의 함축적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의미하는군.
② 고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날 수 없어 느끼는 좌절감을 의미하는군.
③ 대상을 그리워하지만 재회를 기대할 수 없어 느끼는 상실감을 의미하는군.
④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지켜내고자 하는 신념에 대한 간절함을 의미하는군.
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느끼는 회의감을 의미하는군.

10. ⓐ~ⓓ 중, <보기>의 '현실적 자아'에 해당하는 시어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이 시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시 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내면적 자아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LIVEWORKSHEETS